

현장에 답이 있다! 오늘도 현장으로

대한항공 | 위험성평가 컨설팅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 세계 10대 항공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항공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실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문을 두드린 까닭은 그 어디에도 완전무결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은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실을 부단히 현장으로 향하게 하는 힘이다.

글 기시운 사진 김재이





항공사 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신설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실은 2018년 신설된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항공사에 만들어진 것은 국내 최초의 일이다. 항공사는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으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을 두는 일은 전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신설됐지만,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항공안전’에 대해서는 최상의 전문성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은 또 다른 분야였기 때문이다. 건설업, 제조업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립 및 정착에 참고할 만한 선례 또한 없었다.

“승객을 실어나르는 일부터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는 일까지, 대한항공에서 이뤄지는 일은 매우 다양해요.

크게 여객사업본부, 화물사업본부, 객실승무본부, 정비본부, 항공우주사업본부 등 5개의 본부가 있는데 본부별 다양한 작업 유형을 파악하고, 유해·위험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발로 뛸 수밖에 없었죠.” 조직 출범부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실을 이끌어 오고 있는 전인준 실장은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 부문에서는 문외한과 다름없었다고 말한다.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 듣고, 관련 이론을 공부하면서 항공 분야 산업안전보건 지침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 주목할 점은 전인준 실장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실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안전보건 전문자격증을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실 구성원들은 “관리자가 먼저 나서서 공부하니 실원 모두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항공사 만형이 전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점검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26명의 구성원이 대한항공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법적 필수 이행 사항 외에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증진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캠페인을 펼치는 것 또한 산업안전보건실의 중요한 임무다.

“규제와 처벌만으로 일터에서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죠. 임직원의 자발적 안전보건 활동이 관건인데, 이는 산업안전보건실 신설 당시부터 염두에 둔 부분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실 안전보건기획팀 최지애 차장은 임직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세잎이’, ‘세론이’라는 안전보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각각 ‘Safety(안전)’, ‘SELON(부서명)’을 부르기 쉽게 임직

원의 참여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세잎이와 세론이는 각종 안전보건 행사 및 숏폼 영상, 안전보건 관련 홍보물에 등장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실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지난해부터 진행하며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고 있다. 공항 주기장 및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한 ‘육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는 안전문화 활동이다. 대한항공의 안전보건 활동은 사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항공사들과의 협업체를 구성해 항공사 최초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실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항공사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지난 7월 열린 ‘2023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전인준 실장을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에 오르게 하였다.



전문가 그룹과 함께 만드는 시너지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로 탄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항공 산업 안전보건실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문을 두드린 까닭은 무엇일까.

“제조업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항공사 맞춤형 위험성평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수행해 온 위험성평가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 시선으로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솔루션을 얻고 싶었습니다.”

컨설팅은 정비작업 위험성평가 및 화학물질 위험성평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인준 실장의 이야기대로 항공기 정비에만 약 2만 종의 작업이 있었으며, 컨설팅은 TBM(인전점검정비그룹)의 위험성평가 전 단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컨설팅 결과 정기 위험성평가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접목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 밖에도 추락·실족·몸균형 상실 등 정비 작업장 내 공통 위험요소, 특정 작업별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책도 도출됐다.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시 고위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위험성평가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증을 빠르고 상세하게 답변해준 점이에요. 덕분에 수년간 자체 이행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법규 이행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었죠.”

전인준 실장은 협회 컨설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의 운영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완전무결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없다는 믿음 아래,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진행한다는 다짐이다. 🐦

Mini Interview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

산업안전보건실 전인준 실장

Q. 산업안전보건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신설된 조직으로 전사 안전보건경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기획팀, 안전보건점검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안전보건 전문자격증을 1가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을 들려주세요.

현장 임직원의 의견 청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및 학계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